

# 고려인 기록물 23권 국가지정기록물 됐다

소설·희곡·가요필사본 등 육필원고 21권  
고려극장 80여년 사진첩 2권도  
울 광주 개관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 전시  
5·18 다룬 한진 작가 희곡 '폭발' 눈길  
정부 차원 역사적 가치 첫 인정



고려극장 창립 50주년을 맞아 무대에 올린 연극 '춘향전' (위)과 고려극장 1세대 희곡작가 김해운의 '동북선', 타슈켄트 조선극장 배우 전명진의 창기집, 고려인 1세대 대표적 산문작가 김기철의 중편 '금구만' 원고.

(김병학 고려인 연구가 제공)

광주고려인마을(광산구 월곡동)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에 전시될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고려인 2세대 한글문학작가인 한진의 희곡 '폭발' (1985년)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 80년대 중반 구 소련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광주의 참상을 작품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고려인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국가기록원이 정부 차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올해 7-8월께 문을 여는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려인들에게는 조상들이 남긴 문화적 성취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양한 계층을 갖고 활동하는 광주고려인마을에도 시너지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 기록물 소장자인 김병학 연구가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등재된 고려인 기록물은 유명작가나 문화예술인들이 남긴 소설, 희곡, 가요필사본 등 육필원고 21권과 고려극장 80여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첩 2권 등 총 23권이다.

이번 기록물 등재는 지난해 4월 광주고려인마을 주최로 광주시청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기념 고려인역사유물전시회 준비를 계기로 구체화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인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등재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국가기록원 측의 자체심사와 몇 차례의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등재가 확정됐다.

이번에 등재된 고려인 육필원고기록물은 고려극장 1세대 극작가 김해운의 희곡 8편, 2세대 극작가 한진의 희곡 8편 및 소설 1편, 고려인 1세대 산문작가 김기철의 소설 2편, 기타 가요필사본 2편으로 모국어문학작품이 대부분이다.

이번 기록물 지정이 있기까지는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센터 소장자로 일했던 김병학 연구가의 지난날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 지난 2016년 귀국한 그는 "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고려인한글학교에서 25년간 고려인 현지 주민들과 후세들의 한글 교육에 힘썼다"며 "현지에서 고려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도 받고 필요한 경우는 사비를 들여 구입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90년대 초반 당시 북방정책 일환으로 구 소련과의 수교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뜻있는 분들이 건너가 고려인한글학교를 설립했다"며 "이번 고려인 관련 유물은 광주고려인마을과 공동 소유하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기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등재된 기록물 가운데 눈에 띄는 자료는 김해운 작가의 작품이다. 희곡 8편이 등재된 극작가 김해운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와 1939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설립된 고려극장(조선극장)의 창단멤버이며 1950년에는 사할린으로 건너가 조선극장을 크게 중흥시킨 인물이다. 희곡 '동북선' (1935년)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고

무엇보다도 격렬한 항일노동운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9편의 작품을 등재목록에 올린 극작가 한진은 1964년부터 1993년까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유일한 프로덕션으로 활동했다. 그의 대표작 중 희곡 '산부처' (1979년)는 소련문화계의 큰 주목을 받아 두 차례나 모스크바초청공연이 이루어졌다.

사진기록물도 등재된 고려극장 사진첩 2권은 1932년 고려극장 창단 이후부터 2000년 무렵까지 무대에 올린 각종 연극과 배우들의 활동상황을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260여장의 사진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설립돼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세계 최초 우리말 전문연극극장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이번 기록물은 오는 7-8월 광산구 월곡동에 개원 예정인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박우승 고려인동행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은 광산구에서 다문화관련 공모 사업 일환으로 행안부의 도시재생 연관사업에 선정됐으며 현재 리모델링이 진

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이 개관되면 이주민의 삶을 기록하고 디지털화 하는 작업뿐 아니라 콘텐츠 영상화 작업도 병행해 해석하고 공유, 공감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은 역사유물전시관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특별전, 2019년 3·1운동10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청에서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김병학 연구가는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 외에도 소장 자료가 더 있는 만큼 발굴, 정리의 정도에 따라 추가 등재의 길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13호 국가지정기록물 등재에 앞서 고려인기록물은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 (제1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제3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제4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제5호),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 (제12호)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소시민적 욕망과 양심의 갈등... 현대인 자화상

김동숙 작가 '짙은 회색의...' 펴내

소시민적 욕망과 양심의 갈등 등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그린 소설집이 출간됐다. 지역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한 김동숙 작가가 펴낸 '짙은 회색의 새 이름을 천천히' (푸른사상)은 세상의 폭력과 상처 그리고 양심적 딜레마를 그린다.

첫 소설집에 대해 김 작가는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불펜으로 눌러쓴 200자 원고지 100매를 결혼 선물로 주셨는데 첫 책이 나오기까지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 같다"며 "첫 책의 출간과 함께 한 시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절이 시작된다는 느낌에 떨림과 견뎌오야침을 맞이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책에는 '짙은 회색의 새 이름을 천천히', '매미 울음소리', '폐허 산책 추락 사건' 등 모두 8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폭력의 양상과 상처, 현대인들의 복잡다단한 모습들이 형상화돼 있다.

표제작 '짙은 회색의 새 이름을 천천히'는 출생과 함께 인간에게 가해지는 상처와 폭력, 이를 극복하는 의지를 담고 있



다. 주인공은 태어나는 순간 얼굴에 '칼자국'을 받았다는 할아버지의 사주풀이에 의해 불행의 운명에 갇힌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도망치듯 떠난 영국에서도

옆집 남자와 이웃 아이들의 폭력에 노출된다. 사주에 칼자국이 있다는 그녀는 진짜로 칼을 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윤후병 소설가는 "작가는 작품에서 독자에게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 독자가 소설에 드러난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며 "작가는 자기 보존의 소시민적 욕망, 양심의 갈등, 개인에게 가해지는 세상의 폭력과 그것이 남긴 상처, 주체성의 회복과 재정립 등의 세계를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김동숙 작가는 서울시립대 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1년 지역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매미 울음소리'가 당선돼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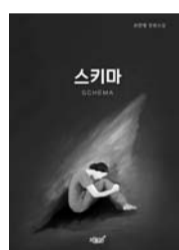
## 현직 의사가 '무의식' 모티브 장편소설 펴내

조안영 박사 '스키마' 출간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 부른다."

칼 구스타프 융의 말을 시작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장편 소설이 출간됐다.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이자 현직 의사인 조안영 박사가 펴낸 '스키마' (지식과 감성)는 무의식의 '스키마'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은 '인지', '암묵적 기억', '회피', '해리', '스키마', '고해'라는 순서로 이어지며 마치 한 편의 의학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작가는 미스터리와 추리라는 기법을 매개로 인물의 마음을 정지하게 들여다본다. 이에 대해 소설가 이기호는 "작가는 마치 '수동적 의존성'에 빠



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부검하는 검시관처럼 그 이면과 그 관계를 필사적으로 파헤쳐 들어간다"고 평한다.

저자는 "내 몸의 일부였던 이것을 떠나서 여기에 내어놓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것이었다가 혐오스러운 살덩이였다가 그저 하나의 책이 되어 버린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것도 내가 보는 세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모든 것이 그저 머릿속의 공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조 작가는 2017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성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향 서포터즈 다음달 3일까지 모집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제 3기 광주시향교향악단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SNS와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향악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우수활동자 인증서발급, 활동경력 증명서 발급, 공연 초대권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활동기간은 2월 10일 발대식부터 1년간이며 오는 2월3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 관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향교향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gso\_choi@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자동차 배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정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저로,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약, 철학, 작명, 공학, 태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생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정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됨!!

☎061)333-4514, 010-3620-7268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석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학승 ☎062)222-6866

**三代(삼대)원조 나주공방**

무안군 삼향읍 오동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효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동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OK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루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분위

☎ 010-8005-018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하중 ☎062)224-4869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